

한국 복식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 1920년부터 1990년까지 -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박 찬 부

전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교수 강 혜 원

目 次

| | |
|----------------|----------------------------|
| I. 序 論 | IV. 研究 결과 |
| II. 理論的 考察 | 1. 服飾文化特性의 時期別 變遷傾向 |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2. 服飾文化內容에 따른 服飾文化 構成要素 |
| 1. 分析類目 | V. 論 譲 |
| 2. 資料의 수집과 측정 | VI. 結 論 |
| 3. 資料의 處理 및 分析 | 参考문헌 |
| | ABSTRACT |

I. 序 論

개화기 이래 우리나라에 보급된 서구문화의 영향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변화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복식문화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복식은 개인과 개인, 個人과 集團의 相互作用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Hamilton, 1987, 2). 인간이 제작하고 사용한 물질의 모든 것을 포함한 文化 즉 物質文化(이광규, 1984, 195)로 분류되는 服飾은 한 集團成員의 全體文化를 構成해 주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한 가지 요소이면서 습관, 생각, 기술 그리고 한 社會를 全體的으로 특징짓는 상황을 가장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것 중의 하나이며(Horn, 1981, 57), 또한 복식은 사회를反映

하고 있는 하나의 거울이다. 거울에 비쳐지는 服飾은 그 服飾이 出現한 文化의 수준보다 더 높지도 낮지도 않다. 服飾은 항상 文化 즉 그 時代의 취향, 경제적 수준, 정치적 구조, 종교 및 사회적 영향 등과 조화된다(Brenninkmeyer, 1963, 176~178). 따라서 어느 특정 집단이나 사회성원들의 복식은 그 社會의 문화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 사회의 文化는 복식에 반영되어 독특한 服飾 文化를 형성한다.

한편 巨視的 관점에서의 文化體系는 기술, 사회 구조, 관념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文化的 下位 體系로서의 服飾도 기술적, 사회 구조적, 관념적 요소와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微視的 文化體系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文

化의 구성 요소들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여러가지 메카니즘과 상호작용한다(Hamilton, 1987, 1~7). 여기에서 여러가지 메카니즘 중의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과 복식문화와의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을 통하여 본 服飾文化는 어떤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까지 의류학 분야에서 수행된 국내의 연구들은 그 종류와量的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적지않다. 따라서 점차 그 내용의 심도가 증대되면서 세분화되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전망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복식은 광대한 범위의社會的 현상이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광대한 범위로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Köning, 1973, 9).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本研究의 목적은 1920년 대부터 1990년까지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Communication Mechanism)을 통해 제공된 服飾에 관한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미시적 문화체계로서의 服飾文化 특성과 그 변천과정을 탐구하여 巨視的 文化體系로 접근하는데 있다.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으로는 여러가지 중 대표적 성격을 가진 신문을 사용했으며, 복식문화의 특성은 복식문화내용가치, 구성요소, 성별차이 및 내용에 따른 구성요소의 차이 등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식문화체계의 접근을 통해 시시적 문화체계를 전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본연구에서 설정한 복식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복식문화 특성은 시기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는가?

- 복식문화 내용에 따른 복식문화 구성요소는全年度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II. 理論的 考察

文化는 社會의 技術的, 政治的, 社會的 그리고 經濟的인 측면의 發達로 끊임없이 수정되며, 그러한 變化는 服飾에 可視的으로 反映된다(Horn, 1981, 55). 이러한 服飾은 사회가 사회 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며 공헌하는가를 해설할 수 있는 축소판 소우주이다(Littrell, 1989, 20). 服飾이란 衣服과 裝飾品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즉 인체를 감싸주고 장식하는 모든 물질을 포괄한다. 文化는 한 사회 집단의 生活樣式 그 자체를 지칭하며(Singer, 1974, 527 : 로저 키징, 전경수역, 1989, 90), 복식문화는 한 사회 성원들의 衣生活 樣式을 총괄한 개념으로서 인체에 관련되는 물질과 행동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 교육적인 것, 관념적인 것,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을 포함한 衣生活과 관련된 현상을 포괄해서 지칭한다.

服飾文化는 社會의 一般文化와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과 區別지울 수 있는 文化體系이므로 下位文化體系(sub-cultural system)(Hamilton, 1987, 1~7 : 이장현, 1987, 80)로 區分지울 수 있다. 하위문화체계로서의 복식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문화 구성요소 : 레슬리 A. 화이트(레슬리 A. 화이트, 이문용 역, 1984, 91~92)에 의하면 “文化體系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는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 기술(technology)의 기초위에 사회체계(social systems)가 놓여있고 그 위에 다시 超構造(superstructure) 부분으로 관념이 있다.”라고 하므로서 세가지 문화체계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해밀頓(Hamilton, 1987, 1~7 : Kaiser, 1990, 530)은 복식은 시시문화체계에서 그 기능이 이루어지며, 복식의 문화적 하위체계는 시시문화체계와 같이, 상호 관련되고 상호 작용하는 3가지 기본적이고 뚜렷한 요소 즉, 기술(물질문화), 사회구조(사회적 행동) 그리고 관념(신념, 태도, 가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技術은 物

質文化로서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섬유, 실, 직물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 기술은 로취와 아이커(Roach & Eicher, 1965, 12~33)의 기술적 유형(technical pattern)에 해당되는 요소이다. 사회 구조는 사회적으로 수립된 질서, 규범 또는 人間이 어떻게 역할 분담하고 집단을 조직하는가 하는 행동 등을 가르킨다. 관념은 文化가 지닌 신념과 가치를 말한다. 善과 惡, 正義와 不義, 적합성과 부적 합성을 규정하는 외현적 또는 내현적인 일련의 인지적 규율(rule)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수용된 服飾에 대한 문제 즉 적합성, 정숙성, 위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속한다. 이는 로취와 아이커(Roach & Eicher, 1965, 14~15, 46~52)의 도덕적 유형(moral pattern)에 해당된다. 문화들 간의 다양성은 이상의 기술, 사회구조, 관념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服飾文化는 이 3개의 層과 관련하여 평가될 수 있다.

문화내용 : 文化는 사람이 사는 세계를 規定해 주고, 사회적 實在가 무엇인지를 構成해 준다. 발드리지(J.V. Baldridge, 1975)는 文化를 그 志向하는 내용에 따라 경험적 인지(empirical-cognitive)의 文化, 심미적 감상(aesthetic-appreciative)의 文化, 그리고 평가적 규범(evaluative-normative)의 文化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김경동, 1986, 147). 認知的經驗의 文化는 現實 또는 實在에 대한 사회적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知覺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또는 현실)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또는 믿음)가 있다. 인지적 경험의 문화는 우리의 삶의 기본을 좌우해주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畵美的鑑賞의 文化는 文化的 현실 규정 기능이 畵美的이고 情感的인 것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려주는 文化이다. 評價的規範의 文化는 文化가 그 내용에 따라 무엇이 좋고 나쁜가, 바람직 스러운가에 따라서 어떤것이 옳고 그른가, 해야만 하고

해서는 안되는가의 표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규범문화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좌우해 주고, 사회 조직의 지침을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김경동, 1986, 147~150). 개인의 일거 일동을 규제하는 규범의 종류에는 예절에서부터 시작하여 公式化된 法律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내용가치 : 문화는 그 내용에 따라 가치가 평가된다. 해방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文化는 대부분 美國 文化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주로 매스 콤에 의존하였다. 매스콤을 통한 文化內容의 가치는 여러가지 각도로 또한 질적,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文化의 多元性, 指向性, 상대성, 진보성, 지도성, 시간성, 비판성의 측면에서 대중매체에 전달된 服飾文化 내용의 가치를 질적으로 분석하므로서 文化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 本研究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신문의 복식 관련 기사의 내용은 그 신문이 위치한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開港 이후 日本과 美國 등 外部世界와의 국제적 접촉은 新文化의 流入을 가능케 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항하여 일어난 3.1 운동(1919)과 그 이후 표방된 일본의 文化政策은 민족 말살을 위한 同化主義 政策이었다(崔弘基·任鎬燮편, 1988, 33~36).

해방이후 美軍政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美國과 주로 긴밀한 우호 동맹 관계를 맺게 되면서 戰勝國인 美國에 의존하여 美國의 文化를 접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6·25를 전후하여 「G.I 文化」라 할 수 있는 美國의 文化가 한국에 대량으로 들어왔고(박기성, 1982, 107)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한 근대화 이론에서 비서구적 사회는 전통적인 것으로 분류되고, 그것은 곧 낙후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0년대 이후 美國文化를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는 전면적으로 급속하게 그 수용이 추진되어 60년대 후반에 대중문화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최홍기·임희섭 편, 1988, 38; 박기성, 1982, 107), 6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중문화 현상은 197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진행되어 文化的 대중화 현상과 대중문화의 수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문화의 대중화를 주도하는 文化는 대중매체에 의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문화이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 대중화는 매스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주류문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특성은 대중매체의 文化라고 할 수 있다(강현우, 1991, 24).

현대의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통 문화의 대중문화가 아닌 미디어와 함께 수용된 외래성 대중문화이다. 우리나라에 外來文化, 특히 구미문화가 전파·이식된 것은 대단히 오래되었다. 일제에 의해 이식된 日本文化도 명치유신 아래의 구미문화의 수용과 동화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外來文化는 해방이후, 특히 6·25 전란이후 급속히 전파되었다. 일제 식민시대에 한국인에 대한 知的創造의 不在와 民族文化의 주체성 말살정책은 해방후 무비판적인 외래 문화의 수용을 초래하였다 (김영모, 1982, 50, 75~80).

원래 文化란 복합적이고 총체적이어서 도구적 성격의 文化品目만을 받아들인다해도 그것과 함께 規範 및 觀念文化까지도 따라서 묻어들어 오게 되는 것이다(林尙源, 1983, 32). 즉 무비판적 구미문화의 수용은 우리나라의 物質文化, 規範文化 및 觀念文化를 지배하였고 이것이 教育과 生活文化를 통하여 토착화하려 하였으며 그 外來文化에 의하여 자란 세대가 사회의 엘리트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많은 文化的 갈등이 發生되어 가치, 규범 등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면서 갈등을 조성하게 되었다(김영모, 1982, 49~81).

1960년 이래 상승해오던 대중문화는 그 文化的 비속성(卑俗性), 반예술성, 비민중성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어 문화적 양식 자체가 쇠퇴하면서 1980년대 民衆文化으로 전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중문화는 대항문화 개념을 지닌 문화로서 민족적·전통적 입장을 진지하고 창조적 엘리트를 통

한 궁금과 중류계급 이상 오르지 못하는 역사적 과도기 혹은 변혁기의 文化로서의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任軒永, 강현우편, 1991, 61~63 : 김원태, 1985, 44~46).

복식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 : 해밀頓(Hamilton)은 인간이 조직한 여러가지 文化的 機構와 文化的 構成要素간의 相互作用이라는 理論體系로 이루어진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술, 사회구조, 관념으로 이루어진 문화의 구성 요소는 인간이 갖고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술은 生物學的(bio-material)욕구, 사회 구조는 사회적 욕구, 관념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된다. 이 요소들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여러가지 문화의 기구와 상호 작용한다. 이 기구는 경제조직, 정치조직, 가족·인척관계조직, 사회화, 사상적 조직, 예술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구들을 포함한다(Hamilton, 1987, 1~7).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의 문화 대중화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이 共有하는 상징, 의미, 언어를 통해서 文化的 세계를 共有하도록 제공하는 機構(Hamilton, 1987, 4)이며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사이의 사상의 교환과 전달·언어·문학 기타 시각·청각에 호소하는 여러가지 매개체(양주동 감사, 1980, 848)로서 인간의 文化行為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G.Gerbner, 박길순, 1991, 49). 인간과 동물에 있어서 생물학적 유전과 관계없는 행동의 전달(transmission)에 꼭 필요한 것은 個人들간의 몇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발달이다(Linton, 1936, 73). 특히 언어는 인간의 사회적 유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다. 생각(idea)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는 文化는 결코 물려줄 수 없다(Linton, 1936, 82).

이와 같이 文化와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는 인간의

觀念形成에 막강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認識能力을 확장시켜 주는 經驗의 態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複合的인 產業 社會로 바뀜에 따라 社會 規範을 強化하는 기능도 있다(尹溶, 1985, 5).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이론적 고찰과 의류학 분야의 既存 研究,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문헌과 연구물(李俊佑, 1987; 安椿鉉, 1986; 徐正宇 外 3人, 1981 등), 사회학, 인류학 분야의 문헌(Linton, 1936; Nystrom, 1928; Kroeber, 1937; 한상복 外 2人, 1990; 김경동, 1986; 이광규, 1984; 김영호, 1982; 이장현 外 1987) 및 해밀톤이 제시한 모델을 근거로 한국 현대 복식 문화의 특성 변인의 범위와 유목을 설정하고 이를 시간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分析類目

신문기사는 취재, 기사작성, 편집 및 지면구성의 과정(서정우 외 3인, 1981, 198)을 거쳐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분석유목은 크게 복식에 관한 기사의 내용 한가지로 설정하였고 이를 세부적인 하위 유목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복식문화의 특성을 이루는 하위변인을 주요 세부유목별로 열거하여 정의면 다음과 같다.

복식에 관한 기사내용

1) 복식문화 내용 :

① 인지적 경험의 문화 :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것으로서, 복식에 관한 과학, 학술, 사상, 철학 등이 포함.

② 심미적 감상의 문화 : 美와 관련된 감각, 기준, 느낌, 형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화장, 패션 쇼, 작품전 등이 이에 포함.

③ 실용적 문화* : 실제적, 기술적인 지식, 방법, 상식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세탁, 정리, 만들기 등.*

④ 평가적 규범의 문화 : 사회정의 및 인간에 기대되는 행동양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교육, 규범, 종교, 생활윤리 등 옷차림이나 몸단장에 대한 예의, 예절, 품위 문제, 유행 등.

2) 내용 가치 :

① 多元性 :

a. 창조적 다원성 : 복식기사 내용의 창작 주체가 어느정도 엘리트적인가, 또는 대중적인가의 정도

b. 소비적 다원성 : 복식기사 내용의 소비 주체가 어느정도 엘리트적인가, 또는 대중적인가의 정도

c. 지역별 다원성 : 복식기사 내용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어느정도 안배되었는가, 국내 적인가 국외적인가, 중앙적인가, 지방적인가의 정도

② 외래지향성 : 복식기사 내용이 외래지향적인 것인가, 또는 전통지향적인 것인가의 정도

③ 미래지향성 : 복식기사 내용이 과거지향적인가, 또는 미래지향적인가, 즉 어느 시점을 중시한 것이냐의 정도

④ 상대성 : 복식기사 내용에서 문화수용에 대한 태도, 즉 전통과 외래문화의 수용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정도

절대주의-전통문화 중심적,

상대주의-외래문화에 대하여 수용적

⑤ 진보성 : 복식기사 내용이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의 정도

⑥ 시간성 : 복식기사 내용이 사건이나 활동

* 복식은 실용적 기능도 중요한 면이므로 인지적 경험의 문화내용과 실용성에 근거를 둔 실용적 문화를 구별하여 유목을 구성하였음.

이전에 작성된 것인가, 그 이후에 작성되었는가의 상태

⑦ 지도성 : 복식기사 내용이 단순정보 제공적인가, 지도적 계도적인가의 정도

⑧ 비판성 : 복식기사 내용이 지도성의 성격을 띠고 적절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

3) 복식문화 구성요소 :

① 기술적 요소(물질적) : 기술, 수단을 제공하는 文化(例 : 섬유, 직조, 직물, Computer 이용, 화장, 머리피부 등)

② 사회구조적 요소(행동적) :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통제되거나 수립되는 행동유형이나 행동규범 등의 행동적인 요소. 즉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행동기준에 관한 규범적 문화(例 : 남자는 옆색, 여자는 방적 등 性역할 区分 등)

③ 관념적 요소(인지적, 주관적) : 의미와 목표를 제공하는 평가적 意識를 지닌 정신문화,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수단으로서 가치, 규범, 지식, 철학, 감정, 가치관(例 : 디자인의 원리, 정숙·비정숙에 대한 태도, 유행적, 비유행적, 가격결정, 성, 연령과 복식과의 적합성, 법적 통제 등).

4) 기사량 : 기사량은 기사가 어느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구성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유목으로, 기사가 차지하는 면적(cm^2)으로서 제목, 사진, 삽화도 포함된 면적 ; 평균기사량은 해당 연대나 종류의 평균기사건수의 기사량을 의미함.

2. 資料의 수집과 측정

1) 분석 대상 및 표집

분석대상 :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신문에 나타난 복식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복식문화 특성 변천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대부분 1920~1990년, 12월까지의 조선일보에 게재된 광고란을 제외한 복식관련 기사이다. 조선일보를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는 ① 1920년 아래 현재까지 停刊이나 일체말기 廢刊期를 제외하고는 계속 발행되었으며 ② 中央紙이지만 권위자로 평가되고 있어 全國紙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李俊佑, 1987)고 판단되어 한국 현대 복식의 文化的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보충자료는 매일신보 기사를 사용하므로서 조선일보 자료수집상의 미비함을 대응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20년도의 3月분, 1934년 분, 그리고 조선일보가 폐간되고 복간되기까지(1940. 8. 10~1945. 11. 23)의 1942년과 1944년 분은 매일신보로 분석하였다.

표집방법 : 표집은 ① 1920~1990. 12까지의 기간에서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方式으로 하여 매 2년마다 표집하고, ② 표집해당 년도마다 每2個月에 1日分 기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표집 해당 연도의 12개월을 6개씩 나눈 다음 각 6개월 중에서 1개월을 無作為로 선정하고 각달에서 일자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多段階 標集 方法으로 하였다. 따라서 年代당 5個 年度가 포함되었고, 年度당 6日분의 기사가 사용되었다.

단, 표집된 연도, 달, 일자에 ① 기사가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② 자료가 消滅되어서 구할 수 없었을 경우, ③ 복식관련 기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前後한 년, 월, 일에 서포집하여 보충하거나 또는 前後한 年度분을 1년분으로 표집하였다. 즉 1937년에서 3일분의 기사를 1938년분 기사로 포함시켰고, 1939년의 2일분 기사를 1940년분의 기사로 포함시켜 표집하였으며, 1922년분 대신 1923년분, 1950년분 대신 1951년분을 표집하였다. 또한 同日字의 朝刊, 夕刊이 같이 발행된 경우는 조·석간 모두 표집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年度, 月, 日이 선정되어 분석대상이 되는 신문은 총 36개 연도, 총 216일분이다.

2) 복식 관련기사의 抽出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복식에 관련된 기사이므로 복식에 관련된 기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식에 관한 범위는 의복과 인체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즉 의복, 장식품, 모자, 신발, 화장, 머리미용 등의 몸단장과 이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현상, 예로서 관습, 사상, 규범, 예의, 예절에 관한 것, 유행, 전시회, 강습회, 염색이나 세탁 등 과학, 상식, 학술적인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것이다.

3) 척도의 信賴度와 安當度

① 분석 유목은 기존 문헌이나 또는 연구논문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므로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높였다.

② 선정된 분석유목은 앞에 제시한 조작적 정의에 의거 3명의 전문가들이 미리 3~4부씩 사전 검토한 후 모호한 것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후 평가자들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내용분석 측정지를 작성하였다. 그후 실제 코딩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임의로 5일분의 신문을 뽑아 7개의 기사를 3명의 평가자가 체크한 후 그 측정치를 Scott *pi* 신뢰도로 산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측정지의 모호한 내용, 미비한 내용을 수정하면서 7차에 걸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1차 0.58, 2차 0.78, 3차 0.82, 4차 ~7차 0.84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높게 산출되었으므로 수정없이 조사에 착수하였다.

3. 資料의 處理 및 分析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분석 유목의 집계체계에 따라 10년 단위의 연대별로 산출하여 시간적 추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유목에 따른 집계체계는 1) 복식문화내용 및 성별차이는 빈도와 비율로 산출하고, 2) 내용가치 및 복식문화 구성요소는 5점 척도 점수로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3) 평균기사량은 지면량(cm^2)으로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해 각 유목의 하위 유목별로 기사건수의 빈도, 비율 또는 척도점수의 평균치를 연대별로 산출하였다. 또한 빈도분포와 함께 각 연대별 해당기사 건수의 평균 기사량을 같이 제시하여 기사건수의 비율과 양적 크기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서 복식 문화의 비중을 가름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해 복식문화 내용에 따른 복식문화 구성요소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고 그 차이의 유의성은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é 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X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服飾文化 特性의 時期別 變遷 傾向

1) 服飾 관련 記事件數

服飾에 관한 기사의 게재는 정치, 사회, 문화적 여건과 신문의 발행 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本研究에서 분석 대상이 된 36個 年度의 216일 분량의 신문지면에서 복식관련기사의 총건수는 280개로 그 年代別 경향을 보면 <표1>과 같다.

<표1> 복식관련 기사건수의 연대별 추이

(전체 280 : 평균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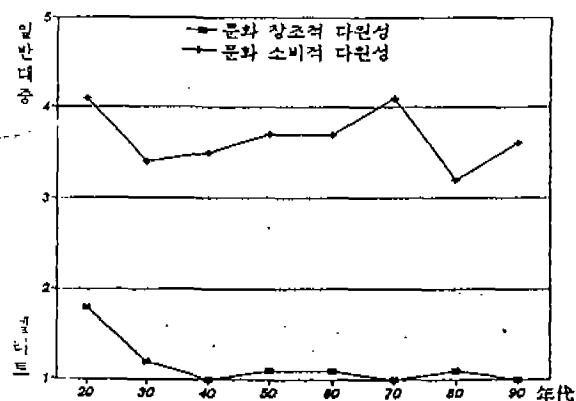
| 구분 연대 | 총기사 건수 | 일일평균 기사건수 | 구분 연대 | 총기사 건수 | 일일평균 기사건수 | 구분 연대 | 총기사 건수 | 일일평균 기사건수 |
|----------|-----------|--------------|----------|-----------|--------------|----------|-----------|--------------|
| 20년대 | 37 | 1.2 | 50년대 | 34 | 1.1 | 80년대 | 33 | 1.1 |
| 30년대 | 53 | 1.8 | 60년대 | 43 | 1.4 | 90년 | 8 | 1.3 |
| 40년대 | 38 | 1.3 | 70년대 | 34 | 1.1 | | | |

〈표1〉에서 보면 복식 관련기사는 30년대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년대에 많으며 50년대와 70년대에 가장 적었다. 그리고 40년대에는 50년대와 70년대보다 기사가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보면, 30년대, 40년대의 日帝 統制時代에 新文化運動이 왕성히 수행되면서 문화면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 下位文化인 복식문화의 비중도 자연 증대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특히 1936年 1月 7日 이후 조선일보 지면수가 조석간 10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이준우, 1987, 217)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된다. 1945년 해방이후 1950년 6·25전쟁을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여건 악화로 文化面의 빈곤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50년대 복식문화에 있어서도 문화현상을 보였다고 해석된다. 70년대는 기사건수에 있어서 50년대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평균 기사량(표는 생략함)에 있어서는 50년대(97.43cm^2)가 70년대(309.94cm^2)의 $1/3$ 도 안되므로 따라서 복식문화에 있어서는 50년대가 가장 저조했다고 할 수 있다.

2) 内容 價値

내용가치는 복식관련기사의 내용이 어떠한 추이로 기치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검토한 것이다(표는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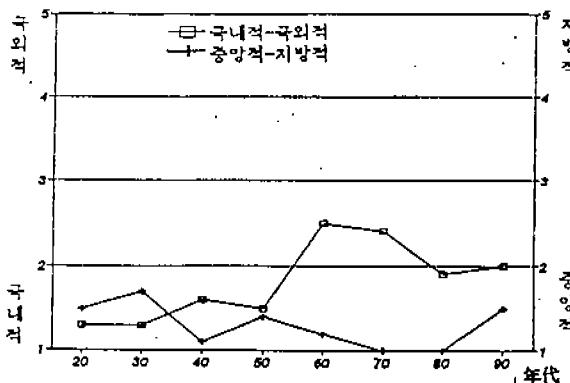


〈그림1〉 문화 창조적 및 소비적 다원성의 연대별 추이

〈그림1〉은 복식문화의 창조적 및 소비적 다원성의 연대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문화 창조적 다원성은 복식관련기사 창작 주체가 누구인가 즉 엘리트인가 대중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복식문화의 창작 주체는 전체적으로 엘리트 중심적(전년도 평균 1.2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시기에 비해 20년대(1.8점), 30년대(1.2점)가 약간 대중적인 경향을 띠었을 뿐 대체로 엘리트 중심의 기사였다고 본다. 문화 소비적 다원성은 복식문화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그 점수가 全年度 평균 3.7점으로서 복식관련 기사는 전반적으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소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대(4.1점)와 70년대(4.1점)가 가장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복식에 관한 기사내용은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들이 일반대중을 위해 창작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문자체가 대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복식관련기사는 인간 생활의 3대 기본바탕인 의식주의 한 중요한 부분을 관할하는 내용으로서 일반대중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년대는 복식문화내용의 창작 주체가 다른 시기에 비해 대중적인데, 이는 이 당시 복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반면 20년대와 70년대에 가장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것은 日本의 大衆運動에 영향을 받아 한국사회에 등장한 문예 대중화 중심의 대중이란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1920년 이후(박기성, 1982, 91)에서부터 30년대에 걸쳐 대중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한국의 大衆文化가 본격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박기성, 1982, 106, 110)라고 볼 때, 복식문화도 한국의 일반대중문화의 보급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다원성은 국내-국외 및 중앙-지방의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림2〉는 전체기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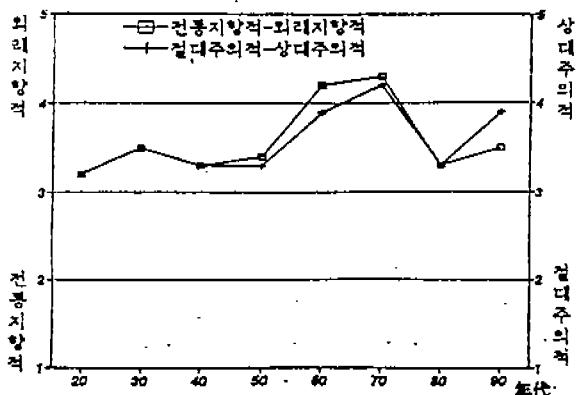
〈그림2〉 지역별 다원성의 연대별 추이

국내-국외 차원 및 중앙-지방 차원의 지역별 다원성을 연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2〉에서 보면 복식관련기사는 전반적으로 국내의 사항을 다루었으나(전년도 평균 1.8) 세부적으로 보면 20~50년대까지는 국내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었고, 60년대~90년대까지는 그 전시기보다 외국의 복식관련내용을 더 많이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0년대(2.5), 70년대(2.4)는 다른 시기와 비해 외국의 복식 관련내용을 많이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사회가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중사회적 경향이 가속화되어 70년대에는 대중사회적 현상이 농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과, 한국사회의 대중화의 경향은 사회 경제적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서구문화에 의한 변 등에 의한 것(金源泰, 1985, 35)이라는 관점에 비추어볼때 소비주체를 주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복식문화가 60년대, 70년대에 외국의 내용이 많이 소개되면서 대중사회적 현상의 일부로서 발현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지방 차원의 지역별 다원성은 전년도 평균 1.3점으로서 대부분 중앙에서 발생하는 사건, 활동 등의 내용이 주로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년대(1.5점) 30년대(1.7점)에는 다른 시기보다 비교적 지방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예관련 문화 기사의 경우 20년대에는 지방관련기사가 많이 보

도되고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지역 중심 기사로 그 비중이 옮아가고 있다고 보고(李俊佑, 1987, 95)한 연구 결과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50년대, 90년대에도 지방적 기사를 많이 다룬 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50년대의 경우는 동란 이후 지방 중심의 정치체제가 잠정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이고, 90년대의 경우는 지방자치제라는 지방문화의 육성 발전이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되나, 이는 90년 이후의 90년대의 추후 과제로 더 추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3〉은 복식 관련 기사의 외래지향성 및 상대성의 연대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외래지향성은 복식 관련기사내용이 외래지향적인가 전통지향적인가의 차원의 문제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평균이 3.6으로서 약간 외래지향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50년대까지는 전통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졌고 60년대(4.2점), 70년대(4.3점)에는 외래지향적 요소가 비중높게 취급된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는 '86, '88 올림픽 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치러어지기 전후하여 전통적 요소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3.3점).



〈그림3〉 외래지향성 및 상대성의 연대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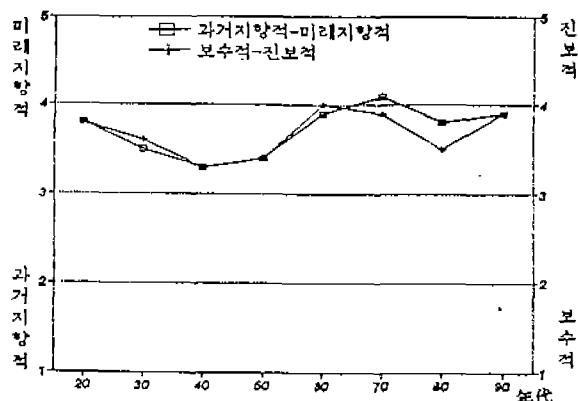
상대성은 문화수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전통문화를 고수하려는 절대주의와 외래문화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인 상대주의 차원으로 측정된다. 복식관련기사의 문화적 상대성은 전년도 평균이 3.6으로서 상대주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년대까지는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거의 비슷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60년대(3.9점), 70년대(4.2점), 90년대(3.9점)는 좀더 외래 문화수용적이었으나 80년대(3.3점)는 전통문화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래지향성의 연대별 추이와 그 추이가 거의 같게 나타나. 외래지향적인 때에는 더욱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보여 두 가지 내용가치 변인의 변화추이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성은 복식관련기사내용이 어느 시점을 중시한 것이냐의 정도로서 미래지향적-과거지향적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그림4>는 복식관련기사의 미래지향성 및 진보성의 연대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복식관련기사의 미래지향성은 전년도 평균 3.7점으로 미래지향적 경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40년대, 50년대는 현재를 중시한 경향을 보였고, 60년대 이후 90년까지는 미래지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성은 복식관련기사내용이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를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진보성의 전년도 평균은 3.7점으로 진보적 경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연대별로 20년대(3.8점), 60년대(4.0점), 70년대(3.9점), 90년대(3.9점)는 다른 시기보다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다. 가장 진보적인 연대는 60년대였고(4.0점), 반면 40년대(3.3점), 50년대(3.4점)는 다른 시기에 비해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60년대의 4·19는 한국의 역사에서 진보로 평가되는 역사적 轉移의 한 중요한 계기이며 1962년이래의 경제개발계획은 역사에서 새로운 전진을 위한 확산에의 새로운 힘을 마련해 줄것이라는 편집(박현채 외 3人, 1987, 115~138)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복식 관련기사내용에 있어서도 60년대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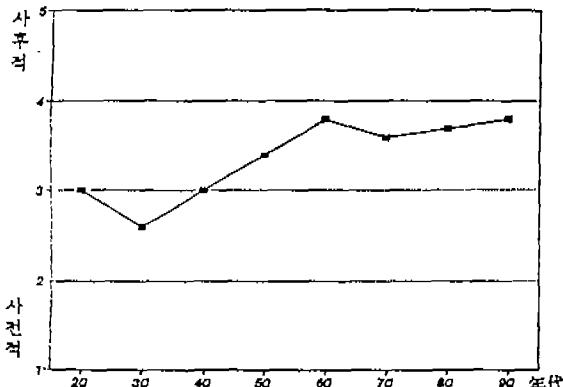
장 진보적인 측면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그림3>과 <그림4>를 보면 외래지향성과 상대성이 유사한 연대별 추이를 보였고 또한 미래지향성과 진보성의 두변인도 유사한 연대별 추이를 나타내,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변인들은 같은 맥락의 가치특성을 지닌 변인들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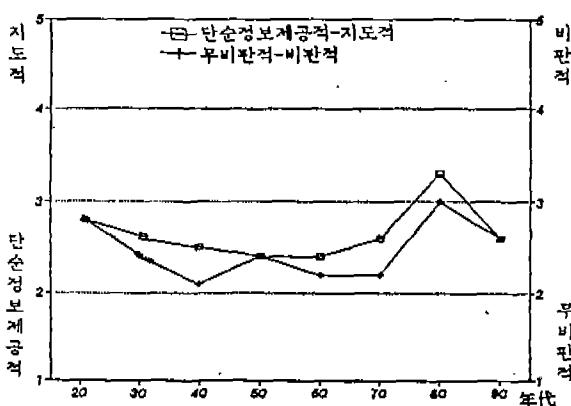


<그림4> 미래지향성 및 진보성의 연대별 추이

<그림5>는 시간성의 연대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성은 복식관련 기사의 내용보도가 사건이나 활동이전에 작성된 것인가 사후적인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년도 평균 3.3점으로 사후적 기사가 약간 많은 경향이었다. 시간성의 전년도 평균(3.3점)에 비교해볼 때 30년대(2.6점)는 사전적 기사의 비중이 높고, 60년대 이후는 사후적 기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60년대(3.8점), 70년대(3.6점), 80년대(3.7점), 90년대(3.8점)는 진체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新文化運動이 전개되는 시기인 30년대에는 문화활동과 내용의 활발한 소개로 안내·예고 등 사전적 기사내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60년대 이후는 이미 활발하게 전개된 문화활동 속에서 선정하여 비평, 보도 등의 사후적 기사로 처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관련기사의 경우의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李俊佑, 1987, 111).



〈그림5〉 시간성의 연대별 추이



〈그림6〉 지도성 및 비판성의 연대별 추이

〈그림6〉은 복식관련기사 내용가치에 있어서 지도성 및 비판성의 연대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도성은 내용이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지나지 않는가 또는 지도적, 계동적인가 하는 문제로서 전年度 평균이 2.6으로서 복식관련기사의 지도성은 미약하여 단순정보제공적인 경향이었다. 20년대(2.8점)와 80년대(3.3점)는 다른 시기에 비해 지도적, 계동적 내용이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시기는 단순정보 제공적인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20년대는 신문기사를 통해 개화기의 복식문화 보급에 있어서 지도, 계동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80년대는 앞에서 논한바 있는 국제적 행사 관계나 교복 자율화

조치를 전후한 사회적 차원의 지도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복식관련 기사의 비판성은 내용이 지도성의 성격을 띠고 적절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年度 평균이 2.4로서 무비판적인 경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지도성의 경우에서와 같이 80년대(3.0), 20년대(2.8)가 다른 시기에 비해 비판적인 내용이 우세한 경향이었으나 나머지 시기는 비판성이 미약한 경향이었다. 20년대는 개화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전통과 외래문화와의 갈등이 표출되어 비평적인 내용으로 기울어졌고, 80년대는 지도성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적, 사회적 측면의 비평이 빈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服飾文化 構成要素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복식관련 기사내용에 있어서 文化的構成要素들이 어느정도로 강조되어 작용하고 있으며 하위문화체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각 구성 요소별로 측정한 것을 연대별로 산출하였다. 〈표2〉는 복식문화 구성요소별 점수의 연대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2〉 복식문화 구성요소점수의 연대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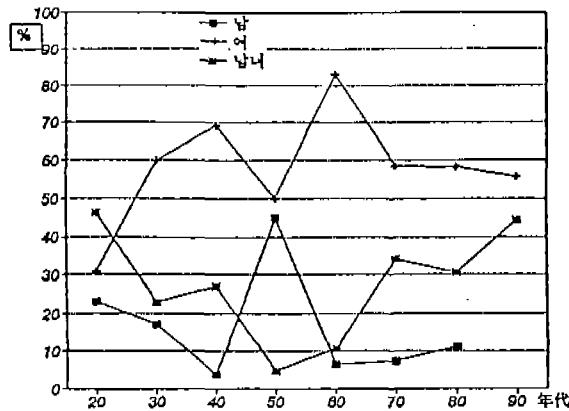
(): 해당 연대의 기사 건수

| 연대 | 기술적 요소 | 사회구조 적 요소 | 관념적 요소 |
|------|-----------|--------------|-----------|
| 20년대 | 3.9 (37) | 1.7 | 3.1 |
| 30년대 | 3.2 (53) | 1.7 | 3.7 |
| 40년대 | 3.6 (38) | 1.8 | 4.2 |
| 50년대 | 2.6 (34) | 1.4 | 4.0 |
| 60년대 | 2.4 (43) | 1.6 | 4.4 |
| 70년대 | 3.6 (34) | 1.2 | 4.5 |
| 80년대 | 3.5 (33) | 1.3 | 5.0 |
| 90년 | 3.0 (8) | 2.0 | 4.0 |
| 총평균 | 3.2(280) | 1.6 | 4.1 |

〈표2〉에서 보면, 全年度 평균에 있어서 관념적 요소는 4.1점, 기술적 요소는 3.2점, 사회구조적 요소는 1.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복식관련기사의 문화적 하위체계에 있어서, 의미와 목표를 제공하는 평가적 함의를 지닌 문화로서 복식의 적합성, 디자인의 원리라든가 정숙성에 대한 태도 등의 관념적 요소가 가장 비중이 높았고, 기술과 수단을 제공하는 문화로서 섬유, 직물, 직조, 화장 등과 관련있는 기술적 요소는 관념적 요소 다음으로 강조되었으며, 행동유형이나 행동규범 등의 절차와 과정을 제공하는 사회구조적 요소는 별로 비중이 높지못한 경향이었다. 연대별로 비교해보면, 관념적 요소는 20년대(3.1점)부터 80년대(5.0점)에 이르기까지 점차 강화되는 추이를 나타냈고, 90년에 약간 약화추세였다. 기술적 요소는 20년대(3.9점)에 가장 비중이 높고 60년대(2.4점)에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20년대(3.9점)에서 60년대(2.4점)에 이르기까지 약화되는 추이를 보이다가(40년대에는 약간 강회되었음), 70년대(3.6점), 80년대(3.5점)에 다시 강화되었다. 사회 구조적 요소는 전반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특징을 찾아볼 수 없으나 대체로 20년대~40년대가 비중이 큰경향이었고 90년(2.0점)이 가장 높았다. 20년대에는 관념적 요소(3.1점)보다 기술적 요소(3.9점)가 더 강조되었고, 기술적 요소는 全年度에 걸쳐 중간 수준(3.0)의 강도로 지속되는 경향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복식문화의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관념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性別에 따른 服飾關聯記事 件數

성별에 따른 복식관련기사의 추이는 복식관련 기사 내용이 성별로 볼때 어느 쪽의 내용을 많이 취급하였는가를 알아보므로서 복식문화에 있어서 남,녀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함이다. 〈그림7〉은 각 복식 종류가 남,녀 또는 남녀중 어느 성을 중심으로 취급한 것인가를 연대별로 그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표는 생략함).



〈그림7〉 성별에 따른 복식관련 기사건수 비율의 연대별 추이

복식관련기사는 全年度 비율에 있어서 여성 중심기사가 62.6%, 남녀 중심기사가 24.7%, 남성 중심기사가 12.8%의 순으로, 여성 중심 기사가 많았다. 남성 중심의 복식 종류로는 주로 의복과 악세사리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고, 여성은 의복, 유행, 화장에 관한 기사가 많은 편이며 남녀 중심의 종류로는 의복, 유행, 신발에 관한 것이 많았다.

연대별로 보면, 20년대는 남녀 중심 기사수가 더 많은 경향이고, 30년대 이후 90년까지는 여성 중심기사가 50% 이상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60년대의 경우 남성(6.4%) 또는 남녀(10.6%) 중심 기사빈도는 매우 미약한 반면 여성 중심의 복식관련기사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여성 중심 기사가 60% 이상으로 비중이 높았던 시기는 30년대(60%), 40년대(69.2%), 60년대(83%)이다. 남성 중심 기사가 여성 중심 기사보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비교적 기사비중이 높았던 시기는 50년대(45%)이고 낮았던 시기는 40년대(3.8%)이다. 특히 50년대는 남녀 중심 기사 비율이 5%로 낮았고, 여성 중심 기사도 50%로 그리 높지 않은 경향이었다. 전반적으로 볼때 60년대 가장 강화되었던 여성중심기사가 70년대 이후 약화되는 경향이었다. 남녀 중심기사는 20년대 이후 50년대까지 비중이 약화추세를 보이다가 60년대부터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70년대부터는 어느 한쪽 성만 중심으

로 한 기사보다 남녀 공통의 복식에 관한 기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 한국 복식 문화에 있어서 60년대까지는 여성중심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70년대 이후부터는 남녀중심의 내용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服飾文化 内容에 따른 服飾文化 構成要索

문화는 인간의 삶의 유형 혹은 생활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상징적이고 제도적인 것 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삶의 설계이고 사람이 사는 세계를 규정해 준다(김경동, 1986, 41). 이러한 포괄적 내용을 지닌 문화를 그 문화의 내용에 따라 나누고 또한 문화의 구성요소(cultural component)로 나누어서, 문화내용에 따라 어떠한 문화 요소가 비중있는가를 파악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므로서 광범위한 문화를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를 특히 복식문화라는 미시적 차원의 문화에서 규명하여 거시적 차원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은 문화의 여러 측면을 연구함에 있어서 좋은 안(案)이 될 것으로 본다.

〈표3〉은 전년도의 복식문화내용에 따른 복식문화 구성요소별 평균점수, 일원 변량 분석 및 Scheffé-test를 나타낸 것이다. 기술적 요소와 관념적 요소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그리고 사

회구조적 요소는 $p < .01$ 수준에서 각각 문화내용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다. Scheffé 범위 검증결과 $p < .05$ 수준에서 문화 내용별 집단간에 각 문화구성 요소 변인 모두가 유의차를 나타냈다. Scheffé 검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요소의 경우, 실용적 문화내용 기사가 다른 문화내용 기사에 비해 기술적 요소를 가장 비중 높게 취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지적 경험의 문화가 심미적 감상의 문화와 평가적 규범의 문화에 비해 기술적 요소를 많이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구조적 요소의 경우, 유의차를 보인 내용변인은 평가적 규범의 문화와 각 인지적 경험의 문화, 실용적 문화간으로서, 평가적 규범의 문화 내용기사가 인지적 경험의 문화와 실용적 문화내용 기사보다 사회구조적 요소를 더 높은 비중으로 취급하였다. 평가적 규범의 문화내용은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좌우해주고 사회조직의 지침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구조적 요소는 주로 평가적 규범 문화내용에서 비중높게 취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념적 요소의 경우, 관념적 요소는 다른 문화 내용 기사에서보다 실용적 문화내용 기사에서 가장 적게 취급된 것이 특징이다. 평가적 규범 문화 내용기사가 다른 문화에 비해 관념적 요소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지적 경험의 문화와 심미적 감상의 문화가 실용적 문화

〈표3〉 복식문화 내용에 따른 복식문화 구성요소의 평균,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é-Test
전년도, N=280

| 문화내용 문화구성요소 | 인지적 경험의 문화 N=79 | 심미적 감상의 문화 N=60 | 실용적 문화 N=39 | 평가적 규범의 문화 N=102 | F |
|----------------|-----------------------|-----------------------|----------------|------------------------|----------|
| 기술적 요소 | 3.85 B | 2.92 C | 4.85 A | 2.33 C | 29.14*** |
| 사회 구조적 요소 | 1.34 B | 1.55 | 1.13 B | 1.87 A | 5.18** |
| 관념적 요소 | 3.91 B | 4.23 B | 2.36 C | 4.83 A | 37.49*** |

*** P < .001, ** P < .01, 문자는 Scheffé-Test : P < .05수준에서 유의함.

보다 관념적 요소를 높은 비중으로 취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문화내용과 문화구성 요소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구체적으로 실용적 문화 내용기사는 기술적인 요소와 가장 관계가 깊고, 평가적 규범문화 내용 기사는 사회구조적 요소 및 관념적 요소와 관계가 깊었다. 심미적 감상의 문화내용기사는 관념적 요소와, 인지적 경험의 문화내용기사는 기술적인 요소 및 관념적 요소와 관계가 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념적 요소는 실용적 문화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문화내용 기사에서 비중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념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목표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치 체계(價值體系), 기대나 신념 등을 자극해서 특정 행동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신화체계(神話體系), 관념적 문화에 이론적 일관성을 부여하는 교의체계(敎義體系) 및 사회체계의 미래를 예견하고 행동화의 방법을 명시한 일련의 주의, 주장인 사상체계(李璋鉉, 1987, 84~85)이라고 볼 때 관념적 요소는 여러 문화의 내용에서 포괄되는 요소로서의 특징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V. 論 議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重要的 경향을 中心으로 하여 韓國 現代 服飾文化 特性에 대한 綜合的 論議를 하고자 한다.

1) 복식문화는 시기별로 30년대와 60년대에 가장 중시되었고, 50년대가 가장 저조하였다.

2) 복식문화는 특히 60년대 이후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성을 보였다. 즉 국외의 기사가 많이 취급되었고, 외래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외국 문화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진보적이며 사후적인 내용이 중시되었다. 또한 70년대는 가장 대중지향적이고, 기술적 요소는 60년대에 가장 비중이 낮았다.

이상의 경향과 관련하여 먼저 복식의 측면에서 논의하면 20년대 후반에 양복 경기가 호황을 누리

면서 양복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김진식, 1990, 103~104) 30년대 전후 한복과 양복이 함께 입혀지면서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여학생 교복에서 양복의 착용이 선행되면서 한복과 양복의 양식의 공존에 따른 과도기적 복식문화 관련 기사가 활발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30년대는 20년대 이후 전개되기 시작한 日帝의 文化政治 즉 新文化運動이 1930년대에 더욱 활성화되었고(유수경, 1989, 179 : 조용만 외 2人, 1982, 5), 이후 조선일보 지면수가 조석간 10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이준우, 1987, 217)되면서 복식 관련 기사가 더욱 빈번히 취급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1920년대 이후 30년대를 넘어오면서 일본으로부터 전개된 大衆(박기성, 1982, 109) 文化的活性化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60년대의 중시된 복식문화는 특히 여러가지 측면의 특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해방 이후 미국의 대중사회적 상황이 한국에 밀려오고(박기성, 1982, 101) 6·25동란을 거친 후 사회적 변동은 文化의 발전을 명행시켰고(홍병숙, 1974, 20~21), 특히 4·19와 5·16, 제3공화국의 탄생, 1965년 이후 韓日會談과 1966년 월남파병(김순심, 1991, 144) 등의 정치적 변혁과 60년대부터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하게 된 산업화의 과정(박기성, 1982, 101)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5·16 이후 조국 근대화의 가치를 내걸고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했으며, 도시화, 교육의 증가, 대중매체의 변화와 발달, 교통·통신의 발달, 섬유 산업의 발달 등을 통해 서구문화가 급속히 밀려오고, 생활양식, 가치관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김순심, 1991, 142~145). 대부분 美國文化라 할 수 있는 서구문화는 政治的 관계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 보편적 가치로서 규범과 관념 문화에 移植되었다. 미국문화의 매개자는 지식인과 매스콤이고 특히 한국인의 70%가 주로 매스콤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기 때문

에 문화 전파와 모방은 급속히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국의 도시와 농촌으로 파급되었고 보편주의적 교육과 물질 문화의 벌달로 고유한 傳統 文化보다는 새로운 文化에 적응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기반에서 생성된 생활 문화가 아닐지라도 流行(文化變動)에 따르기 위하여 外來文化를 모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自主的 文化를 창조하지 못하고 지배층이 모방한 외래 문화를 다시금 모방한다(김영모, 1982, 70~79)고 하는 관점에 비추어 60년대에 나타난 복식 문화 특성을 풀이할 수 있겠다.

특히 流行은 사회적 불안정이나 긴장을 표현하는 장을 제공하여(Kaiser, 1990, 50), 유행이란 현상은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 翹음의 강조, 사회적 동요, 富의 확산(Nystrom, 1928, 24~25), 기술진보(Ryan, 1966, 77) 등의 요인에 의해 촉진되며 불안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도움을 주는(강혜원, 1974, 352) 사회 심리적 특성을 가진 것이므로 60년대의 정치적 사회적 동요,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기술 진보, 부의 확산 및 翹은 세대가 중시되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60년대는 한국의 복식문화의 변화에 커다란 變化 기점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외래지향성에 있어서 증가 추이를 보였던 1960년대~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 이후는 전통지향적인 추세를 나타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첫째, 60년대 이후 美國文化를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는 4차례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산업화와 더불어 전면적으로 급속하게 그 수용이 추진되어 대중문화의 출현을 보게 되었고(최홍기, 임희섭 편, 1988, 38), 70년대에 들어와 대중문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文化的 대중화 현상과 대중문화의 수용이 급격히 늘어났으나(강현두, 임희섭 편, 1988, 21~22), 1960년 이래 상승해오던 대중문화는 그 文化的 卑俗性, 비민중성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되어 文化的 양식 자체가 쇠퇴하면서

1980년대 民衆文化으로 전이하게 되었으며(任軒永, 강현두 편, 1991, 47~61), 이는 민족적·전통적 입장을 견지하는 文化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김원태, 1983, 44~46)는 견해의 한국 사회의 文化的 特性과 이에 부가하여 둘째로, 80년대의 제5차,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도·농간, 소득 계층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 지역간 균형 발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환경보전의 도모(유광호 外 5人, 1987, 321, 336~341), 80년대에 86 아시안게임, 88 국제올림픽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로 인한 한국적 요소의 강화 또는 전통적 요소의 강조가 부합되어 전통지향적인 추세를 보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4) 指導的, 批判的 복식관련 기사는 전체적으로 미약한 경향이었으나, 1920년대와 1980년대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強化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1920년대는 開化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流入된 새로운 文化的 수용과 보급에 있어서 신문의 계도적 기능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개화와 더불어 모던(modern)해진 여성(崔京子, 1981, 50) 복식의 새로운 유행 현상에 대한 논란이 전통과 외래 문화와의 대립·갈등으로 표출되어 비판적으로 기울어졌을 것이다(李圭泰, 제10권, 1985, 263~264; 제9권, 233; 제7권, 252). 뿐만아니라 당시 文化, 社會, 信仰, 生活改善 등 生活全般에 걸친 광범위한 女性運動(李美敬, 1984, 24)이 시도되면서 복식 등 衣生活에 대한 指導·批判이 加速化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1980년대는 종·고교 교복 자율화와 함께 교육적, 지도적 측면의 비평과 국제 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와 패션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적 측면의 비평은 민족적·전통적 입장을 견지하는 비판적 民衆文化의 출현(任軒永, 강현두 편, 1991, 47~55)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비판적 경향을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해석된다.

5) 복식문화의 구성요소중 관념적 요소가 가장 중시되었고 다음으로 기술적 요소로서, 기술적 요소는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조되는 경향이었다.

관념적 요소가 기술적 요소, 사회구조적 요소보다 가장 중시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현대 한국의 정치·경제적 사회의 현상은 일제시기, 해방, 6·25동란, 4·19, 5·16,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등의 社會變動이 진행되는 전환기 사회로 볼 수 있는데, 안정된 사회에서와는 달리 광범하고도 根本的인 社會變動이 진행되는 전환기 사회에 있어서의 文化는 전통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는 대신 그 이태을로 기적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觀念的 要素가 중시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전환기 사회의 성원들은 기존의 전통적 행위 양식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양식을 선택, 창조, 수용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며 그와 같은 조건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노선을 인도할 價值, 신념, 의미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임희섭, 1988, 18~19)는 이유에서 觀念의 要素의 강화 이유를 풀이해 볼 수 있으며, 둘째로 한국인 價值觀이 자연 숭배사상·불교·유교 문화의 종교적 배경에서 생성되어 價值志向이 조상숭배, 上典意識, 체면, 慎順 등이라고 지적되는데, 이는 비얼스테드(Bierstedt)의 觀念 文化에 해당하는 요소이다(김영모, 1982, 44~75). 즉 한국인의 가치관은 관념적 요소가 강하게 內在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문화에서도 이런 측면이 강조될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적 요소의 중간수준 정도로의 지속적인 강조는 섬유, 직물, 직조, 화장 등에 관한 기술과 수단 및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되어야만 할 불가결의 복식문화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6) 60년대까지는 여성 복식 중심의 기사였고 70년대 이후는 남·녀복식 중심의 기사가 강화되는 추세였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개항과 더불어 남성복의 변혁이 먼저 일어나고 개화의 물결이 여성 복식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 남녀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고는 해방 이후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나(安椿鉉, 1986, 248)

여성에 관한 전통적인 여성상의 의식은 60년대까지 크게 변화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6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사회인으로서의 여성상, 이에 따른 남녀 평등 차원에서의 여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여 70년대는 남녀평등 차원의 여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간(尹嬉重, 1985, 73)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신문사진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에서 70년대 이후 80년대에 들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보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安椿鉉, 1986, 248)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70년대의 미니, 미디, 맥시, 샤텔라인, 핫팬츠, 큐롯, 판탈롱 등의 다양한 모드(mode)의 공존과 장발과 다양한 색상의 T-셔츠 차림의 男性 모드, 유니섹스 모드라는 용어의 생성·확산이 바로 70년대 의상계의 실상으로서 70년대는 「共存」이니 「多元化」니 하는 70년대의 국제 정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用語가 한국 패션界에 그대로 적용되는 年代(동아연감, 1972, 509)로서의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60년대까지 전통적 여성상이 內在된 복식 중심 기사가 강조되고 70년대 이후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및 男女平等 次元의 문제의 대우와 더불어 유니섹스 모드, 多元化된 복식의 共存이 男·女 복식 중심의 기사 빈도의 증대를 초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 평가적 규범 문화는 다른 문화내용에서 보다 사회구조적 및 관념적 요소를 가장 강조하였고, 실용적 문화는 기술적 요소를 가장 강조하였으며, 관념적 요소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 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회구조적, 관념적 요소는 평가적 규범의 문화를 통해서 강조되며 기술적 요소는 실용적 문화를 통해서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韓國 現代 服飾文化 特性에 대한 論議를 통해서 볼 때 文化的 下位體系로서의 服飾은 巨視的文化體系를 직접적으로 분명히 말해 주고 있는 力動的이고 상호 작용하는 體系임을 알 수 있다.

VI. 結論

本研究는 복식문화에 관한 기존의 부분적이고 편중된 연구의 편협성을 극복하고, 文化的下位體系로서의 복식을 微視的文化體系로 생각하여 그特性을 규명하므로서 복식문화를 巨視的 관점의 文化體系로 전망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을 통해 제공된 복식관련 기사를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밝혀진 韓國現代服飾文化特性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복식 관련 기사의 건수·비율의 추이로 볼 때 대체로 30년대와 60년대에 복식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기사건수·기사량을 종합해 볼 때 50년대에 가장 중요성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복식 관련 기사는 전체적으로 중앙 중심의 국내 기사가 많았고, 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단순 정보제공적, 무비판적 내용가치를 보였다. 20년대, 70년대는 가장 대중 중심적이고, 60년대 이후는 이전보다 국외 기사가 증대되었으며 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상대적, 진보적, 사후적 기사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60년대~70년대가 가장 외래지향적이었고, 80년대 이후는 60년대~70년대보다 전통지향적인 추세를 보였다. 지도성, 비판성은 전체적으로 약한 경향이나 20년대와 80년대에 강화되는 경향이었다.

3. 복식 문화의 구성 요소는 20년대 이후 계속 관념적 요소가 가장 중요시되었고 다음으로 기술적 요소이었다. 기술적 요소는 20년대에 가장 중시된 반면 60년대에 가장 저조하였고, 사회 구조적 요소는 20~40년대 및 90년대에 다소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4. 복식 관련 기사는 60년대까지는 여성중심 기사가 가장 많았고, 70년대 이후는 남·녀 중심 기사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5. 실용적 문화는 기술적 요소, 평가적 규범의 문화는 관념적·사회구조적 요소를 가장 강조하

였다.

이상과 같이 1920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복식 문화의 특성 경향을 분석하여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가 가지는 限界點 및 提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 관련 기사를 한정시킨 문화 특성 범인 중심으로 내용분석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문화 현상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연구 대상 기간과 分析類目이 많은 관계로 측정 결과 자료의 분석이 深化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복식분야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先行研究가 거의 없어 연구의 深度가 미흡하였다.

둘째, 1920년부터 1990년까지 70여년의 광범위한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집 일수의 통제가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라 기사 건수가 적어 분석 결과의 타당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단기간의 특정 시기별로 표집의 크기를 확대시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세째, 신문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개념적 원리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분석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 구체성이 결여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법 또는 앞으로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延世論叢, 제11집, 연세대 대학원, 1974.
- 강혜원, 의상사회 심리학, 교문사, 1984.
- 康賢斗(編), 韓國의 大衆文化, 나남, 1991.
- 康賢斗, “現代韓國社會와 大衆文化”,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91, 21~37.
- 權赫南, “사회 발전 단계별 정보의 구조적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과학, 6집, 고대 신문방송 연구소, 1982, 1, 129~153.
- 權惠喨·李京子, “한국 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

- 한 연구”, 服飾, 제7호, 韓國服飾學會, 1983, 21~37.
-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1986.
 - 金文朝, “傳統과 社會變動”, 林嬉變題, 韓國社會의 發展과 文化, 나남, 1988.
 - 金秀貞, “1950年代 韓國 패션의 变천과 그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순심, “우리나라 복식 현상에 관한 연구(1960년대와 7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 제16호, 한국복식학회, 141~148.
 - 金源泰, “大衆社會와 文化現象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과학 7, 통권9호 고대신문 방송 연구소, 1985. 8, 29~50.
 - 김진식, 한국 양복 100년사, 한국복장 기술 경영 협회편, 미리내, 1990.
 - 金泳謨, 韓國社會學, 범문사, 1982.
 - 金暎希, “開化期 洋服導入과 受容過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南潤淑, “한국 현대 여성 복식 제도의 变천 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동아일보사, 동아연감, 1968, 72~74, 79~80, 82~83, 86, 88~90년
 - 亂朝 키징, 全京秀역, 現代 文化 人類學(1,2,3 권), 玄音社, 1989.
 - 박길순·김진구, “과학 기술 발달이 한국 여성 복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1945~1989년 中心으로)”, 服飾, 제15호, 한국 복식학회, 1990, 107~120.
 - 朴基成, “한국 대중문화론의 전개”, 커뮤니케이션 과학 제5집,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 1982. 2, 83~111.
 - 박길순, “한국 현대여성 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1945~1990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박찬부, “衣生活 文化의 過去·現在·未來”, 제4회 韓日家政學會, 1987. 7, 38.
 - 박현채·정윤형·이경의·이대근 편, 한국경제론, 까치, 1987.
 - 徐正宇 外 3人, 新聞學 理論, 박영사, 1981.
 - 손명임·김진구,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연구”, 服飾, 제14호, 한국 복식학회, 1990, 145~166.
 - 安椿鈺, “新聞寫眞에 나타난 性役割의 比較分析 研究 – 해방이후 1985년까지의 內容分析을 通하여”, 亞細亞女性研究, 25집, 淑明女大, 아세아 여성 문제 연구소, 1986, 219~261.
 - 양주동 감수, 현대 국어 사전, 범중당, 1980.
 - 吳澤變, 社會科學 데이타 分析法, 나남, 1984.
 - 爰光浩 외 5人, 현대한국경제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7.
 - 爰水敬, “한국 여성 양장의 变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尹嬉重, “신문사설에 나타난 여성 문제<조선, 동아일보 사설(1967~1984. 6)을 중심으로>”, 신문학보, 제19호, 1958, 한국신문학회, 1985. 5. 1, 59~74.
 - 尹溶, “대중·언론·정부의 三角關係에 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 과학 7, 통권9호, 고려대 신문 방송 연구소, 1985. 8. 1~27.
 - 尹佑鉉,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본 한국 70년대의 특징”, 커뮤니케이션 과학, 제2집, 고려대 신문 방송 연구소, 1980. 6. 3~15.
 - 李康洙, “매스미디어와 大衆 文化”, 강현두편, 한국의 대중문화, 1991, 나남, 66~80.
 - 李光奎, 文化 人類學 概論, 一潮閣, 1984.
 - 李圭泰, 開化百景, 이규태 집작선집, 제6권~제10권, 韓國出版社, 1985.
 - 李美敬, “한국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变천에 관한 연구 – 양장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논문, 1984.
 - 李相禧, “傳統文化와 大衆文化”, 강현두편, 한국의 대중문화, 1991, 나남, 38~44.
 - 李信馥,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수용”, 방송연구, 1984. 12, 43~51.

- 레슬리 A. 화이트, 이문웅(역), 文化의 概念, 一志社, 1984.
- 李義鉉,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Likert 尺度의 利用에 관한 소고”, 커뮤니케이션 과학 7, 통권9호, 고대 신문방송 연구소, 1985. 8, 51~85.
- 李樟鉉 外, 社會學의 理解, 범문사, 1987.
- 李俊佑, “한국 신문화의 文化的 機能 變遷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방과 박사학위 논문, 1987.
- 林尙源, “전통의 계승과 外來文化의 수용”, 방송연구, 1983. 12, 27~35.
- 任軒永, “민족 문화와 대중문화”, 이강두편,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91, 45~65.
- 林嬉燮, “韓國 文化의 變化와 展望”, 林嬉燮 편, 韓國社會의 發展과 文化, 나남, 1988.
- 林嬉燮(편), 韓國 社會의 發展과 文化, 나남, 1988.
- 정현숙 · 김진구, “세익스피어 작품에 나타난 복식의 역할”, 복식, 제15호, 한국 복식학회, 1990, 209~216.
- 趙慶姬, “세계 패션의 흐름에 나타난 실루엣과 경제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3.
- 趙溶萬 外 2人, 日帝下의 文化運動史, 현음사, 1982.
- 趙溶萬, 한국 신문사 운동사, 正音社, 1983.
- 車培根, 사회 과학 연구 방법, 世英社, 1990.
- 채서일, 마케팅 조사론, 무역 경영사, 1987.
- 崔敬者, 최경자 패션 50년, 의상사, 1981.
- 崔弘基, “韓國 文化의 自生的 展開”, 林嬉燮 편, 韓國社會의 發展과 文化, 나남, 1988.
- 한상복 · 이문웅 · 김광억,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 출판부, 1990.
- 洪起宣, 커뮤니케이션論, 나남, 1984.
- 洪秉淑, “1980년대의 대중문화와 유행 스타일과의 관계연구”, 가정문화논총, Vol.2, 중앙대학교 가정문화 연구소, 1988, 85~105.
- 洪秉淑, “우리나라 女性衣服의 流行에 關한 研究(최근 20년간의 양장을 中心으로)”, 중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 A. 토인비(閔丙山 · 李義植 역), 歷史의 研究 I · II, 東都文化社, 1982.
- Bellah, R.N. et al, Habits of the Heart, N.Y. : Harper & Row, 1985.
- Babbie, 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3rd ed.), California : Wadsworth, Inc., 1983.
- Brenninkmeyer, I., The Sociology of Fashion, Köln Opladen : Westdeutscher Verlag, 1963.
- Hamilton, J.A.,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T.R.J., 6(1), Fall 1987, 1~7.
- Hamilton, J.A. and J.W. Hamilton, “Dress as a Reflection & Sustainer of Social Reality :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T.R.J., 7(2), winter, 1989, 16~22.
- Horn, M.J. and L.M. Gurel,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1981.
-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Y. : Macmillan, 1990.
- Kerlinger, F.N.,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2nd ed.),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 König, R., A La Mode, N.Y. : The Seabury Press, 1973.
- Kroeber, A.L. The Nature of Cul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7.
- Linton, R., The Study of Man, N.Y. : Appleton-Century-Crofts, 1936.
- Littrell, M.A.,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Clothing :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한국의류학회

- 1989년도 추계 학술 세미나 초청강연, 1989, 10, 4~28.
- Nystrom, P.H., Economics of Fashion, N.Y. : The Ronald Press, 1928.
 - Paoletti, J.B., "Content Analysis :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T.R.J., 1, 1982, 14~17.
 - Roach, M.E. and J.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 John Wiley & Sons, Inc., 1965. 5~56.
 - Ryan, M.S.,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6.
 - Singer, M. "The Concept of Cultu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3, N.Y. : Macmillan & Free Press, 1974.

ABSTRACT

"The Changes In Cultural Characteristics of Dress and Adornments in Korea"
(From 1920 to 1990)

Chanboo Park, Professor

Inha University

Hewon Kahng, Former Professor

Yeon 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ultural characteristic of dress and adornments by examining articles on dress, adornments, and related items in Korean newspaper over periods historically and objectively by means of content analysis. This study attempted to attain a macro-cultural view by analysing closely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dress and adornments as a micro-cultural system through culturally based model suggested by Hamilton.

The two-hundreds and eighty articles on dress and adornments were selected from newspapers (most by from Chosun Ilbo and partly from Maeil Shinbo) published between 1920 and 19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culture of dress and adornment received much attention during the 1930's and 1960's and little during 1950's.

2. Various cultural characteristics of dress and adornments appeared on and after 1960's : reporting more foreign news items, showing foreign-oriented and future-oriented features, showing cultural relativism.

In the 1920's and 1970's, the contents of news items on dress and adornments show the most common mass-oriented character. Foreign-oriented cultural tendencies in clothing were increasing during from 1960's to 1970's, but the tendencies were turned to rather tradition-oriented features on and after 1980's compare with 1960's~1970's. Advisory, critical articles on dress and adornments were small in number and insignificant, but compare with other periods these received much attention during the 1920's and 1980's.

3. Ideological components received much attention on and after 1920's to 1990. Technological components received much attention during 1920's, and little during 1960's. The social structural components received a little attention on and after 1920's~1940's and 1990.

4. News items on women's dress and adornments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he 1920's to 1960's, and news items on both men's and women's dress and adornments were increasing and received much attention on and after the 1970's.

5. The pragmatic cultures were mostly related to technological components, and evaluative-normative culture were mostly related to ideological and social structural components. In the light of these results,

dress and adorments as a cultural sub-system comprise a dynamic, interacting system that articulated directly with the macro-cultural system.